

“펼칠까 돌릴까”... 불붙는 ‘이형(異形)’ 스마트폰 경쟁

펼쳤다 접을 수 있는 삼성·모토로라·MS 폴더블폰

LG전자, ‘LG윙’ 이어 롤러블폰 내년 출시 준비

펼쳤다 접을 수 있는 삼성전자 폴더블폰 ‘갤럭시Z폴드2’에 이어 LG전자가 디스플레이 이형(異形) 스마트폰 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14일 오후 온라인 행사를 열고 전략 스마트폰 ‘LG윙’을 공개했다.

평상시에는 일반 스마트폰처럼 사용하다가 필요시 메인 스크린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숨어 있던 세컨드 스크린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영상을 보면서 메신저로 대화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 키패드로 사용할 수 있어 멀티태스킹에 유용하다.

LG윙은 LG전자가 야심차게 내놓는 ‘엑스플로러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제품이다.

‘엑스플로러 프로젝트’는 스마트폰의 진화된 사용성에 무게를 두고, 성장 가능성 있는

영역을 선제 발굴해 나가겠다는 LG 스마트폰의 혁신 전략이다.

하나의 앱(애플리케이션)으로 두 화면을 모두 사용하거나, 두 개의 앱을 각각의 디스플레이에서 사용할 수 있다.

LG윙만이 가지고 있는 폼팩터의 장점을 극대화 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짐벌(Gimbal) 모션 카메라’ 기능도 적용했다.

짐벌은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으로 영상을 촬영할 때 카메라가 흔들리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영상 촬영을 가능하게 하는 전문 장비다.

LG윙 후면에는 각각 6400만(광각), 1300만(초광각), 1200만(초광각) 3개의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전면 카메라는 디스플레이에 두지 않고 별도의 3200만 화소 팝업 카메라를 채택했다.

LG윙 예상 출고가는 100만원대 초반으로, 폴더블폰보다는 저렴한 가격이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제품은 10월 초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 삼성전자 갤럭시Z폴드2는 첫 번째 폴더블폰인 갤럭시폴드보다 화면이 커지고 사용 경험이 강화됐다.

갤럭시Z 폴드2는 6.2형의 커버 디스플레이와 7.6형의 메인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폰을 접거나 펼쳤을 때 모두 생동감 있는 콘텐츠 경험을 제공한다.

6.2형의 인피니티-O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커버 디스플레이는 ‘갤럭시 Z 폴드2’를 펴지 않은 상태에서도 간편하게 동영상 감상하거나 지도·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등 사용성을 대폭 강화했다.

커버 디스플레이 크기는 커졌지만 베젤을 줄인 심플한 디자인으로 한손에 착 감기는 편안한 그림감이 특징이다.

화면을 펼치면 노치를 없애고 카메라 홀만 남긴 7.6형의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가 나타난다.

제품 후면에는 각각 1200만 화소의 초광각·광각·망원 등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했으며, 커버 디스플레이와 메인 디스플레이에도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2, 갤럭시 플립 5G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LG 윙’

각 10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가격은 전작과 같은 239만8000원이다.

이달 11~14일 진행된 갤럭시Z폴드2의 국내 사전 판매량은 이동통신사와 자급제 물량을 합쳐 6만대를 기록했다.

가격이 200만원이 넘는 비싼 스마트폰임을 감안하면 이형 폼팩터(기기 형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밖에 모토로라와 마이크로소프트(MS)도 폴더블폰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모토로라는 지난 9일 폴더블 스마트폰 ‘레이저’의 5G(5세대) 모델인 ‘모토 레이저 5G’를 공개했다. 피쳐폰 향수를 느끼게 하는 레트로 디자인으로 구현된 이 제품은 삼성 ‘갤

럭시Z플립’과 비슷하게 위아래로 접히는 클램셀(조개껍데기) 형태다. 펼쳤을 때 내부 화면은 6.2인치 크기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듀오’는 5.6인치 화면을 경첩(힌지)로 이어 붙인 듀얼 스크린폰이다.

나란히 붙은 두 개의 화면에 각각 다른 앱을 띄워 실행할 수 있다.

한편 LG전자가 돌돌 마는 형태의 롤러블 스마트폰을 출시하게 되는 내년에는 ‘이형’ 스마트폰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미희기자

삼성 ‘그랑데 AI’ 세탁기·건조기 소용량 신제품 출시

1인 가구·좁은 공간에도 설치 가능해 편리



삼성전자가 좁은 공간에도 설치 가능한 ‘그랑데 AI’ 세탁기·건조기 소용량 신제품을 16일 출시한다.

삼성 그랑데 AI는 진화된 인공지능 기술로 사용자의 세탁 습관과 환경에 맞게 최적의 세탁·건조를 해주는 프리미엄 제품이다.

이번 신제품은 10kg 세탁기와 9kg 건조기로 그랑데 AI만의 차별화된 인공지능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심플한 컨트롤 패널, 컴팩트한 디자인 등을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

는 추세와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 가능한 소형 프리미엄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그랑데 AI 소용량 모델을 도입했다.

특히 세탁기의 경우, 10kg 소용량 신제품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그랑데 AI 제품과 비교해 직렬 설치 시에는 높이가 약 22cm 낮아지고, 병렬 설치 시에는 가로가 17cm 가량 좁아져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신제품은 세탁기에서 선택한 코스에

맞춰 건조코스까지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AI 코스 연동’,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코스와 옵션을 기억해 우선 순위로 보여주는 ‘AI 습관 기억’ 등 대용량 제품에 적용했던 기능이 그대로 구현된다.

또한 세탁기와 건조기를 공간 형태에 따라 상하 직렬, 좌우 병렬, 별도 설치 모두 가능하다. AI 코스 연동 기능은 설치 방식에 관계없이 구동할 수 있다.

10kg 세탁기 신제품은 ▲사용자가 선택한 코스와 빨래 양에 맞는 세제와 유연제를 자동으로 투입해주는 ‘세제 자동 투입+’ 기능과 ▲세탁물의 오염도를 감지해 자동으로 세탁·헹굼 시간을 조절해주는 ‘AI 맞춤세탁’ 기능도 탑재했다. 9kg 건조기 신제품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고 청소할 수 있는 열교환기 ▲빨래에 묻은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을 99.99% 제거하는 ‘에어살균+’ 등 대용량 건조기에서 호평 받은 기능들을 대거 적용했다.

그랑데 AI 신제품은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화이트와 그레이지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세탁기와 건조기 모두 119만 9000~124만9000원이다.

이달에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무는 “삼성전자는 국내 최초로 16·17kg 건조기를 출시하며 대용량 시장에서 리더십을 공고히 했으며, 이번 신제품 출시로 프리미엄 소용량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들까지 만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비자들이 ‘가전을 나답게’를 경험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페덱스, 코로나 19 여파로 배송물량 증가

사업연도 1분기 매출 전년동기보다 13% 증가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는 가격 인상, 연료비 절감,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배송 물량 급증으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페덱스는 지난달 말 종료된 올해 사업연도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난 193억 달러(약 22조7006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분기 이익은 12억5000만 달러로 67%나 증가했다.

페덱스는 또 지난 분기 페덱스 그라운드하루 평균 배송량이 1160만개로 31%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분기 동안 패키징당 수익은 2% 증가한 9.33달러를 기록했다.

페덱스는 “코로나19 사태로 3~5년에 걸쳐 거대할 수 있는(매출) 성장세가 3~5개월 만에 나타났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페덱스는 불확실성이 높다는 이유로 당분간 연간 수익 전망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

기동채본부

코레일, 역사매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연장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곤경에 빠진 철도 연계 소상공인과 물류고객을 위해 매장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 경감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 위축과 매출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수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과 물류고객사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우선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철도 연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지원기한을 12월까지 4개월 추가 연장한다. 지난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11개월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다.

코레일은 철도역 매장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20% 경감하고 있다.

또한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물류고객사도 추가 지원한다. 미적제 운임과 물류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기한을 9월(7개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늘리기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국가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탬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 ‘내게 맞는 대출 찾기’ 누적 대출 1.2조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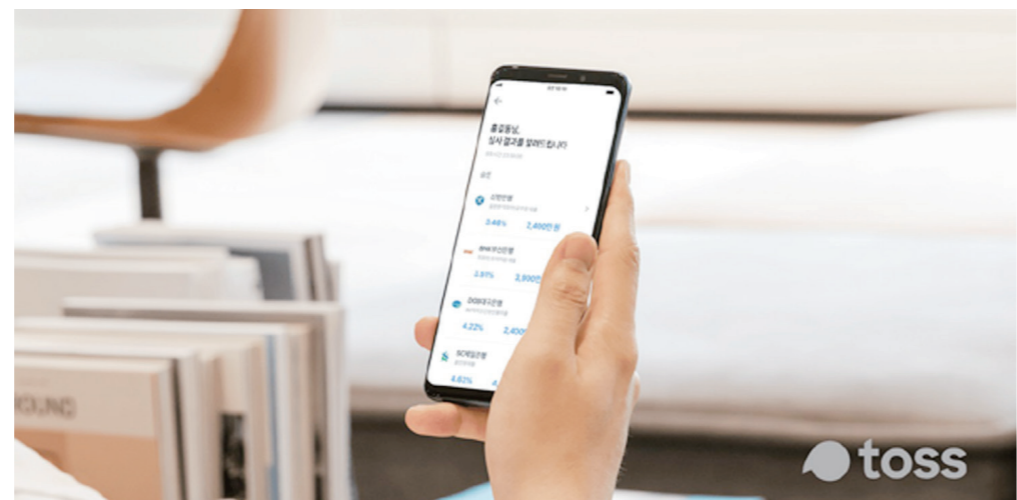
출시 1년여만에 대출신청 2300만건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내게 맞는 대출 찾기(내맞대)’가 출시 1년여만에 누적 대출 실행금액 1조2000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달 기준 누적 대출 신청건수는 2300만건, 누적 승인금액 1933조원 이상 규모다.

지난해 8월 출시한 ‘내맞대’는 토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10개 은행 등 금융회사 25곳의 신용대출 상품 금리와 한도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날부터 내맞대에서 볼 수 있는 신한은행을 비롯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등이 최근 내맞대 서비스에 입점했다. 신한은행이 핀테크 대출 비교 서비스에 입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만 23세 이상 토스 사용자라면 간단한 본인 인증과 신청정보를 입력한 뒤 누구나 내맞대를 이용할 수 있다. 각 금융기관에서 심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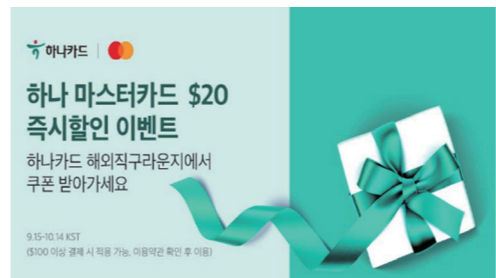
대출금리와 한도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고, 조회에 따른 신용등급 영향은 없다.

신청 과정은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대출 약점 절차를 마무리하면 된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내맞대는 참여 금융기

관을 대폭 확대해나가며 출시 1년여만에 1.2금융권 전체를 아우르는 대출 비교 서비스로 성장했다”며 “금융소비자 수요가 높은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 상품으로 카테고리 확장에 대출의 다양한 맥락을 포괄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카드-아마존 ‘20달러 할인 쿠폰’ 이벤트



하나카드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업체인 아마존닷컴과 ‘20달러 즉시 할인 쿠폰 이벤트’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하나카드는 해외이용 전용 플랫폼 ‘글로벌 머스트 해브(GLOBAL MUST HAVE)’를 통해 다음달 14일까지 아마존에서 하나 마스터카드 100달러 이상 구매시 20달러를 바로 할인해주

는 쿠폰을 선착순 3500명(1인 1회)에게 준다.

하나카드 모든 고객에게 10만원 이상 구매시 5000원을 돌려주고, 20만원 이상 구매시 1만원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최근 하나카드가 내놓은 ‘해외 FREE(무료) 직구 보험 무료서비스’를 통해 아마존 구매 고객 전원에게 마배송, 파손, 반품, 단순 변심에 의한 반송을 보장한다.

서지은 하나카드 글로벌마케팅부 수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는 요즘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아마존과 함께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해외직구를 즐기는 하나카드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차별화된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